

# 사회

## 건설사로 돈 빼돌리고 딸 특별승진 출석일수 미달 1만3천여명에 학점

### 강진 성화대 감사로 드러난 비리 실태

교과부 감사결과 65억원대 교비 횡령 등 총체적인 부정·부실이 드러난 성화대의 비리를 키운 것은 이른바 '특별 경영체제'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1일 교과부가 발표한 특별감사결과 그 핵심에는 설립자 이모씨의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된 법인 이사진 7명이 있었다.

지방대학의 학생 모집을 위한 고전적인 수법인 '학점·학위장사' 의혹도 불거졌다. 교과부는 대부분 지방 전문대학이 학생모집에 고전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 대학의 재학생 총원율이 119%에 달하는 점으로 미뤄 '학점 퍼주기' 등 편법 학사운영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운영' 비리 키워=성화대는 법인·대학 운영에서도 편법·불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설립자인 이모 전 총장은 법인 이사회를 배우자(이사장)와 고향 선배, 고교 동문 등으로 구성해 사유화했다.

성화대에는 장녀(31)를 총장 직무대행으로, 둘째딸(27)을 회계팀장으로 앉히고 자신이 실질운영하는 건설사의 부하 직원을 학교 사무처장에 임명하는 등 '특별체제'로 경영했다.

결국 '특별경영'은 비리의 온상이 됐다. 이씨가 무려 65억원의 교비를 거둬들여 썼을 수 있었던 배경인 셈이다.

실제 이씨는 지난 2005년부터 교비 52억원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사 4곳과 패션업체 1곳 등 5개 회사로 빼돌리고 대학과 무관한 차입금 상환, 개인 변호사 비용에 쓰는 등

65억원을 횡령했다.

◇교직원 부당 채용학위장사=교직원에게 적용되는 내부 승진 제한도 이씨 가족들에게 장애가 되지 않았다.

둘째 딸의 경우 내부 직급상 9급에서 6급까지 정상 절차로는 8년이 걸리지만 3년3개월만에 특별승진했다. 또 경영대학원에 재학 중인 일반직원 신분으로 교원 무자격자인데도 결임교원으로 임용돼 전공과 무관한 '장애인복지관', '가족상담 및 치료' 등 6개 과목의 강의를 맡았다.

성화대학은 또 규정을 어기고 전임교원 21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교원을 채용하면서 기초심사위원을 모집분야와 무관한 대학 소속 교원으로 구성하거나, 기초 및 전공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학위장사 의혹도 불거졌다.

교과부는 성화대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재학생 총원율이 119%여서 지표는 양호했지만 이는 직장인 또는 원거리 거주자(당시 재학생의 약 25% 추정)로 총원했고 출석일수 미달에도 학점·학위를 주는 등 '학위장사'를 한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감사결과 3년(2009년~올해 1학기) 동안 수업일수 미달학생이 시간제등록생을 포함해 1만3000명에 달하는 점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성화대학이 지난 2006년과 2010년 두차례에 교과부 감사결과 교직원 임면, 회계운영, 학사관리 등에 위법·부당한 사례가 지적됐음에도 편법·불법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취임승인 취소, 학교폐쇄, 법인 해산 등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쓰레기장 된 '어번폴리'

1일 광주시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 인근 '어번폴리'(Urban Folly-도시 조형건축물)가 들어설 부지가 행인들이 버린 쓰레기로 가득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한 아파트서 한 달새 빈집털이 5건

### 광주 남구서... 저층만 골라 절도 동일범 소행 추정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빈집털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한 달새 무려 5건의 절도가 같은 아파트에서 발생한다. 범행이 폐쇄회로(CC)-TV가 비치지 않은 저층 아파트만을 골라 베란다를 뜯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동일범의 소행이 확실시되고 있다.

1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시 남구 양림동 모 아파트에 사는 A씨로부터 "안방 등에 보관해둔 현금과 명품시계 등 총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누군가 훔쳐갔다"는 신고가 최근 접수됐다.

경찰은 A씨가 저녁시간대 자주 집을 비운 것으로 미뤄 지난 20일 부터 최근 사이 심야시간에 누군가 베란다를 통해 집안으로 침입, 금품을 싸쓸이해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A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지난 6월 13일부터 20일 사이에도 4건 이상의 빈집털이 사건이 발생해 피해액이 최소 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빈집털이 피해자들은 대부분 1~2층에 거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아파트 인근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5층 이상의 낮은 층만 골라 턴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올해 초부터 2건 이상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총 7건에 이르는 남구 일

대 연세 아파트 빈집털이 사건의 범행수법이 공구를 이용해 저층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강제로 열어 집안으로 침입한 점 등을 들어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그러나 범인이 주로 CC-TV가 찍히지 않는 아파트만을 골랐으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베란다를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는 용이주 도합을 보이며서 경찰은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전남문화진흥원 채용 비리 포착

### 전남경찰, 관련자 계좌 추적 증거 확보

### 인건비 횡령도 수사

전남문화진흥원 인건비 횡령과 문화산업 지원금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지방경찰청은 1일 관련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인력 채용 과정에 부정할 정황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진흥원이 외부 인사 청탁을 받아 직원을 채용했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히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관련자에 대한 계좌 추적 등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현지 도의원의 자녀가 경력을 위조해 진흥원에 취업했다는 주장과 관련, 현재 의혹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 사실 확인 작업 중이다.

경찰은 인건비 횡령과 관련, 진흥원 간부가 채용 날짜를 소급 적용하거나 유령 직원을 내세워 공금을 횡령한 뒤 비자금용 조상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 김기훈 진흥원장이 인사와 관련한 각종 압력과 청탁에 시달렸다는 글을 남긴 채 자살하자 의혹 해소 차원에서 진흥원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 "전남도립국악단 전 상임지휘자

### 임신 단원에 성차별 발언 인권침해"

### 인권위, 교육 권고

단원 인격모독과 성차별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전남도립국악단 전 상임지휘자에 대해 국가위원회가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인권교육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1일 "전남도립국악단 전 상임지휘자 김모(47)씨가 임신한 단원들에게 '피임도 못 하느냐'고 말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같은 결정 내용을 단원들에게 통보하고, 국악단에는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박준영 전남지사에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김씨는 공연을 앞둔 지난해 7월 임신 상태의 단원 2명에게 '피임 할 줄 모르느냐'고 말하는 등 성차별적 발언과 인격모독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또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공연 인건비를 허위 원통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7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가 경찰에 입건돼 지난해 7월 해촉됐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영산강 임시물막이 유실

### 공사 영향 없을 듯

광주·전남지역에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영산강 사업 공사현장의 임시물막이가 유실됐다.

하지만 유실된 임시물막이의 용도인 하수관거 보강공사에 대부분 안료돼 공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광주 서구 서창동과 광산구 송정동 사이 영산강사업 6공구 하수관거 보강공사 현장의 길이 100m·

높이 3m 규모의 임시물막이가 불어난 강물에 쓸려 내려갔다.

또 작업을 마치고 공사현장에 세워둔 굴삭기 3대 중 기사와 연료가 닿지 않아 미처 대피하지 못한 굴삭기 1대와 현장을 점검하던 순찰차 1대가 불어난 강물에 침수됐다.

익산국토청은 이날 새벽 2시에 1m에 불과하던 수위가 2.5m까지 상승하자 매뉴얼에 따라 작업차량을 대피시키고 하류에 위치한 승촌보의 자동보 4개를 열어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했다고 설명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축산물 원산지 둔감

### 광주 등 20곳 적발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늘고 있는 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소가 행정 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광주·목포·순천·광양·여수 등 5개 지역에 전문단속반 17개 반(2인 1반)을 투입해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20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3곳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17곳은 5만~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광주시 북구 A식육점은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고, 순천시 연향동 B방면집은 국내산 육우(젓소)를 냉면용 편육으로 조리한 뒤 매뉴얼에 '국내산 한우고기'로 허위 표시하다 적발됐다. 전남지원은 다음달 10일까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 나원침 (8370) 김중두



### 난동 화순군의회 2명 법원, 영장 기각

화순군의회 난동 사건을 수사중인 화순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처상 혐의로 화순군의회 조유승 의장과 문행주 의원 등의원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로 볼 때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 고흥 200mm 폭우

1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오후 6시 현재 영남면에 203mm의 비가 내렸고 고흥읍 137mm, 도야읍 55mm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영남면 용암마을 앞 하천이 범람해 일대 도로가 1시간여 동안 통제됐다. 앞서 오후 4시 10분께는 영남면 우미산에서 빙돌 섞인 토사가 흘러내려 산 아래에 있는 송모(64·여)씨와 마모(48)씨 집을 덮쳤다. /동부취재본부=주강기자 gju@kwangju.co.kr

### 남이 모이든 재활용품 '슬쩍' 고물업자

다른 사람이 무더위 속에서 땀 흘려 주워 모은 재활용품을 차량을 이용해 '슬쩍'한 40대 고물수집업자가 경찰서행.

○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정모(45)씨는 지난 31일 오전 7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염주동 한 공터에서 폐 플라스틱과 유리병, 음료수 캔 등 10만원 상당의 재활용품을 든 김모(55)씨의 대형 비닐봉지를 자신의 승용차에 실어 달아뒀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고물수집업자인 정씨는 자신처럼 고물을 수집하는 김씨가 잠시 재활용품을 든 비닐봉지를 든 채 자리를 비운 것을 우연히 발견한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상위권 대학편입대비, 자타공인 대한민국 No.1  
자연계열 편입합격의 열쇠, 지방 유일 실강의  
편입영어(이론과정/문제풀이)    편입수학(미,적분과정/선형대수)    전남대 편입 Hot Point!, 전남대 맞춤형 Teps- Teps 대개강 (Teps + 면접대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 기여편이하인 모인보수권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 8월 1일